

國家安危勞心焦思

羅安國檢察官

廣成三月 於德嶺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謹誌

國家安危 勞心焦思
국가안위 노심초사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여
마음을 졸여 애태운다.



뜻풀이: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자)

한국고전번역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실시학사 연구원장,
(사)퇴계학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사)안중근의사승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www.patriot.or.kr | ahnjunggeun.or.kr
TEL. 02) 771-4195, 3789-1016 / FAX. 02-753-5033

大韓國人 安重根 2018 Vol.45

2018 / Vol. 45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Magazine

大韓國人 安重根



(사)안중근의사승모회 / 안중근의사기념관

(사)안중근의사승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표지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의 여름 전경을 담았습니다. 그 위에 시각화시킨 애국심을 앗혀 안중근의사기념관의 정체성을 오롯이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작은 원들은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의 작지만 큰 울림을 의미합니다.

『大韓國人 安重根』 vol.45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Magazine

발행일 2018년 7월 31일
발행처 (사)안중근의사승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
발행인 이 사장 김황식
편집인 기념관장 이영옥
기획·디자인·사진 로직큐브(031-982-5305)

『大韓國人 安重根』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지킵니다.

목차



愛天 안중근, 하늘을 사랑하다

- 04 한반도 평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해안 있다!
-김황식 (사)안중근의사승모회 이사장
- 06 안 의사의 평화메시지 통해 대한민국의 재건을 꿈꾸다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 10 헤드라인 뉴스
- 16 프롤로그

- 18 특별인터뷰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 23 나의 스승 나의 인생
-안중근의사의 정신적 스승 빌렘 신부

- 26 역사 편지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이야기_동풍신 열사님께

愛族 안중근, 겨레를 사랑하다

- 28 역사를 찾아서
-안중근의사 유적지 답사기_다렌·뤼순·하얼빈을 가다!

- 30 안중근을 말하다
-일본인이 본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 평가

愛人 안중근, 사람을 사랑하다

- 36 안중근을 기리며
- 39 뜻을 잇다
- 40 기념관 발자국
- 42 알림관
- 44 안중근 토크보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 속에 헤아린다

김황식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황금 개띠의 해라고 일컬어진 2018년 무술년(戊戌年)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 가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100여 년 전, 온 인류가 대립과 갈등,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안중근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안중근의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이며 동양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파탄시킬 인물이라고 보고, 그를 처단한 후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시다가 순국하셨습니다.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의사가 20세기 초, 일제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면서 세운 지표로 그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기초적 배경이 된 사상체계였습니다. 비록 집필을 끝내지 못한 채 순국하시어 완성되지는 못하였으나 탁월한 국제정세 감각과 해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동양 각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방략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즉, 서문(序文)에서 전쟁을 통해 패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침략정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전감(前鑑)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제시하며 일본의 동양에 대한 침략정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동양평화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의 면담 기록인 청취서에서 극동의 분쟁지인 뤼순(旅順)을 영세중립지대로 정하여, 그곳에 한·중·일 3국이 대표를 파견해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3국의 청년들로 공동의 군단을 편성해 이들에게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을 높이자고 하였습니다.

“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위국헌신 정신과 평화사상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

그리고 3개국이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함께 쓰는 공용화폐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오늘날의 유럽연합(EU),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의 기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100여 년 전에 이미 유럽연합(EU) 형태 등의 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상한 선견지명은 매우 놀라운 식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의사는 의병투쟁 당시 생포한 일본군 포로를 놓아 주고, 뤼순 감옥에서도 간수 등 일본인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려 했던 독립운동가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평화론자였다는 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줍니다.

최근 우리 한반도가 평화를 향한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으나 북핵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극복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중근의사가 순국하여 미완으로 남긴 동양평화론의 위대한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꿈꾸며 고민하고 실천했던 안중근의사의 핵심가치인 위국헌신 정신과 평화사상을 되새기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안중근의사의 평화메시지를

중심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재건을 꿈꾸다

의거 및 순국 110주년(2019. 10. 26~2020. 3. 26) 송모사업 기획에 즈음하여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세계의 어느 국가나 민족이든 그 국가나 민족이 받들어 모시는 영웅이나 위인들이 있다. 정치적인 기여, 혹은 학문 분야에서의 탁월한 공헌 등으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되는 인물들이다. 미국의 워싱턴과 링컨, 영국의 뉴턴, 이탈리아의 갈릴레이, 인도의 간디 같은 이들은 국적을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위인들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며 소속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인의 존재는 위인 자신에게도 훌륭한 일이지만 국가와 국민에게도 꼭 필요한 정신적 자산이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소 소홀히 여겨지는 정신적 자산이 존재한다. 바로 안중근의사다. 안 의사가 겨우 삼십 세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은 한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아시아의 평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원리와 방법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내년 즉 2019년 10월 26일과 2020년 3월 26일은 안중근의사께서 평화실현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시고, 평화성취의 과정에서 순국하신 지 각각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5개월의 기간 동안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안 의사가 소망했던 대로 평화사상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행사를 다각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확산시켜서 전 세계가 평화 속에 하나 되는 미래를 앞당기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안 의사 의거와 순국 110주년을 맞이하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되새겨 한 마음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첫째, 안 의사의 의거일에는 110주년 기념식을 거국적인 행사로 치른다. 대형 칸타타 공연으로 시작을 알리고 국내외에서 공연을 무대에 올려 평화에 대한 열망을 정서적 차원에서 확산시킨다. 2020년 3월에는 순국일 사흘 전 즉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정치, 경제, EU, 철학, 역사 등 제 분야의 저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을 초빙,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된 <동양평화론>을 읽고 이를 세계의 평화사상 전반에 관한 토론과 비교, 연계하도록 한다. 4개국의 현대어로 번역된 이 단행본은 현재 기념관에서 발간 준비 중에 있다.

이 포럼에는 작년부터 시행해온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대학생들의 글로벌 워크숍에서 선정한 논문 발표도 포함시킨다. 포럼 제3일인 3월 25일에는 평화선언일 행

사를 가진다. 즉 국제포럼의 종료와 더불어 저명한 세계적 학자들과 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안중근 평화 110주년 선언문을 채택한다.

둘째, 5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안중근 칸타타 공연은 의거를 결행하기까지의 안 의사가 고뇌했을 과정을 포함한 안중근의 의거와 체포된 후 표명하신 평화사상과 국가 간의 평화실현방법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안 의사가 옥중에서 평화의 뜻으로 남긴 수십 점의 먹글씨 작품을 재정리하여 작품마다의 유래를 포함, 그 의미를 한글,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해설을 갖춘 도록을 한정판으로 발간한다. 이는 유목들이 단순히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다 옥에 갇힌 사람의 지속적인 평화추구의 몸짓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각각의 언어로 그 의미와 내용을 풀어 넣음으로써 한자를 모르는 세대와 세계인들에게 안 의사의 평화추구가 깊은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예술품으로 태어난 것임을 알리고자 함이다.

넷째, 안중근의사가 남긴 모든 저술과 관계 사료(史料)들을 현대 언어로 편집 정리하며, 그를 기초로 한 영역본을 만들어 해외학자들의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110년 전에 한 평생을 아시아 내지 세계평화에 대한 소망으로 헌신하신 청년 안중근의 평화사상을 우리 한국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 혹은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이 후대들의 임무다. ♪

In Celebration of the 110th Anniversary of Ahn Junggeun's Vision for Peace Beginning October 26th, 2019, through March 26th, 2020

Young-Oak Lee Director General,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Heroes are respected across the world. Those who sacrificed themselves or contributed to the welfare of humanity are duly admired throughout generations across nationality and/or ethnicity.

Ahn Junggeun, a Korean young man who died a premature death, should have long been listed on the pedestal of honor. For all his life, though short, he fought for, and lived to restore, peace in the East, which, prior to the World War I, was being jeopardiz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colonialism. Like Washington and Lincoln, Ahn fought for justice; like Jeanne d'Arc, he formed the resistance army and helped his nation regain independence and promote Asia's peace.

Thus Ahn Junggeun joined the pantheon of the great figures who give hope for the future to the people. And yet, ironically enough, even Koreans were not quite aware of the real contribution of Ahn the Martyr, for it was only

in 1969, almost sixty years after his death, when a print copy in Japanese translation of his *Prison Narrative: an Autobiography of Ahn Eungchil* was discovered in a second hand bookstore in Tokyo. Koreans also belatedly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Ahn made every effort to pursue peace in Asia and endeavored to propagate the principles and the ways of achieving that goal to the world until his death.

The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is planning to declare 'the Ahn Junggeun Commemoration Period' from October 26, 2019 and thru March 26, 2020. We will celebrate the 110th anniversary of the two memorable events: one that Ahn put his idea of realizing peace into practice and the other that he was martyred in the process of achieving it. During the five months, the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is scheduled to hold a variety of main and subsidiary events that are aimed at reilluminating Ahn's idea of peace in Asia. Those projects aim

to reaffirm the identity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 inherit and promote the cultural and spiritual legacy of Korea, and thereby help shape the future when the people of the whole world live in peace as early as possible. The planned ev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whole event will kick off with the performance of a grand-scale Ahn Junggeun Cantata. The Cantata will be staged continually for five-months at different venues in Korea and, hopefully, outside the country as well. This will serve as a momentum to reinvigorate the propagation of the heroic undertaking of Ahn—including his agonies in the process as a Catholic--and the idea of peace and the way of realizing peace among the nations, which he expressed in prison.

Second, we will hold an International Peace Forum to commemorate the last three days of Ahn. The world-renowned scholars in diverse fields of international politics, economy, European Union studies, philosophy, and history will be invited to discuss Ahn's design for peace. The panels will analyze Ahn's theory of peace as expressed in his *Treatise on Peace in Asia* and also in his interview with the Head of the High

Court in Lushun, China, held in comparison with other theories of the world peace.

The academic Forum will also include the readings of the papers that have been selected as the outstanding articles at the Museum's Annual Global workshops for the college students from foreign countries, including Japan. On the third day of the forum, on March 25, we will release an Ahn Junggeun Peace Communiqué.

Third, we will put together dozens of calligraphic works that Ahn Junggeun wrote while in prison and gave away to the surrounding Japanese at their request, such as the Head Prosecutor, the prison doctor, monks, police interrogators, prison warden, translator and so on and so forth. They provided Ahn with stationery--brush, paper, silk and ink etc. The catalogue of calligraphies will contain the background stories of the respective pieces in three different languages, Korean, English, and Japanese.

In conclusion, it is vital for all of us, Korean or non-Korean, to reilluminate Ahn's profound thoughts and reestablish his idea as the precious spiritual asset and legacy and to ultimately contribute to realizing peace in the world. ♯

Editorial Consultants

Dr. Shawn Normandin was born in Providence, Rhode Island, U.S.A. He obtained a PhD from Boston University in 2008. Since 2010, he has taught at Sungkyunkwan University, where he is now an associate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oetry, literary theory, and ecocriticism.

Dr. Sohn Tae-soo, Ph.D., is adjunct professor at Department

of Translation of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TESOL a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He was formerly a reporter and editor of the *Korea Herald* and an editor-in-chief of the English monthly *Seoul* at Seoul Selection. Some of his main interests ar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English literature and criticism, Korean studies, and East Asian thoughts.

주요 소식

<제2회 글로벌 한국사 워크숍> 2018년 8월 12일~13일 개최 -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 알리기 위한 취지... 외국인 대학생 대상 -

글로벌 한국사 워크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으로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안중근의사기념관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다. 워크숍 초빙강사인 랜더대의 프랭클린 라우시 교수는 캐나

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대에서, 한지은 박사는 연세대에서 안중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들의 강연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이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청취서》 8월 중 발간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 현대어로 최초 번역된 단행본 -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과 이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준 《청취서》를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국 현대어로 최초 번역하여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을 발간한다.

당시 사형집행을 예상했던 안 의사는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여 그가 구상하고 있던 평화방법론을 면담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동양평화론을 보완하였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주관 국제학술회의> 2018년 11월 5일 오후 1시 개최 - “안중근 관계 사료(史料)의 현황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일본 류코쿠대 안중근동양평화센터와 공동으로 하얼빈의거 109주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미 벨라 박 연구원, 미국 랜더대의 프랭클린 라우시 교수, 일본 교토산업대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교수, 히로시마 메이쇼지(明正寺) 테라야마 쥬행주지(寺山壽範)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안중근아카데미 2019년 3월 개강 - 다양한 주제별 강연·토론, 국외답사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 눈길 -

제14기 안중근아카데미가 지난 6월, 27명의 안중근 홍보대사를 배출하고 2018년도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5기는 2019년 3월 개강한다. 성인대상 전문교육프로그램인 안중근아카데미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 15주간 실시하며, 안중근홍보대사 양성을 목적으

로 국내 최고 전문강사들의 강의와 토론, 중국 하얼빈 등 안중근의사 사적지 답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개설된 안중근아카데미는 지금까지 300여명의 안중근홍보대사를 배출했으며 수료 후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이 지난 3월 17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 앞줄 왼쪽 네 번째 박준용 총영사, 윤자성 회장, 안중근의사 증손자 안도용과 유가족들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회장 윤자성)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안중근의사의 증손자 안도용(Tony Ahn, Jr.) 씨와 유가족, 박준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을 비롯해 지역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계기 행사로 사진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1987년 설립된 이래 31년간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윤자성 회장은 안 의사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윤능효 지사의 친손녀이다.



미국 뉴욕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이 (사)안중근의사숭모회 뉴욕지회(회장 윤영제) 주최로 지난 3월 26일 오전, 미국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신원식 뉴욕영사, 김승도 광복회 뉴욕지회장 등을 비롯해 지역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안중근의사숭모회 뉴욕지회는 2010년에 설립됐다.



News in Brief

The 2nd Global Workshop for Korean History to Be Held in August

The 2nd Global Workshop for Korean History will be held at both the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and the International Hall of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for a two-day run on Aug. 12 and 13, 2018. To be held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two-day workshop will invite two Ahn Junggeun specialists, Prof. Franklin Rausch at Lander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nd Dr. Han Jieun at the Korean Christian Culture Institute, to reilluminate Ahn Junggeun's idea of peace. The

lecture session will be followed by discussions on how to inherit and promote, as well as globally carry out, the idea of "A Treatise on Peace in the East" that suggested more than 100 years ago the way for the three n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cooperate together, establish peace in the region, and promot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The workshop is held to offer the youth from both at home and abroad an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Ahn's thoughts of peace.

Hot News

Ahn Junggeun's Vision for Peace Is To Be Published

The posthumous unfinished manuscript of Ahn Junggeun's "A Treatise on Peace in the East" and the record of his in-prison interview "The Statement of Ahn Junggeun as a Murder Defendant," which contains his trailblazing idea of peace for Asia, is scheduled to be jointly published in a single book in August this year, based on the translation into four different languages of Korean,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The publication of *Ahn Junggeun's Vision for Peace* (acting title) by the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a compilation of Ahn's two manuscripts of "The Statement of Ahn Junggeun as a Murder Defendant" – originally written in

classic Japanese – and "A Treatise on Peace in the East" – written in classic Chinese – in the four languages is aimed at propagating Ahn Junggeun's thoughts of peace to the whole world.

"A Treatise", written by Ahn at Lushun Prison, contained the essence of his vision for realizing peace and establishing a peace community in Northeast Asia.

The manuscript, however, was unfinished because of Ahn's execution. On a hopeful side, the core idea of the vision for peace was contained in "The Statement of Ahn Junggeun," a record of his interview with the Head of the High Cour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Materials on Ahn Due in Novembe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Trend and an Analysis of Research Materials on Ahn Junggeun" will be held at the Memorial Museum on Nov. 5 this year.

Distinguished presenters include

- Yi Tae-jin, Professor Emerit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Bella Pak, Institute of Oriental Studir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ussia

- Franklin D. Rausch, Assistant Professor History of Lander University, U.S.A
- Togo Kazuhiko, Professor of Kyoto Sangyo University, Japan
- Terayama Jyuhan, Hirosima Meisho-ji Temple, Japan

The 2019 Ahn Junggeun Academy Opens in March

Having been established as a professional educational program of the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for adults, the annual education session of the Ahn Junggeun Academy is scheduled to open in March 2019 for a 15 week run. The session is under way on Tuesdays between March and June every year.

Designed to cultivate the future honorary ambassadors of the Ahn Junggeun, major events

of the program include: lectures and discussions led by the nation's top-notch instructors and a field survey of the historic site of Ahn in Harbin.

The 14th completion ceremony of this year, held on June 26, produced 27 honorary ambassadors of Ahn. Since its launch in 2011, the Academy has so far produced as many as 300 honorary ambassadors who still received related materials and sources from the Academy.

California, U.S.A



▲ 4th from left, Park Jun-yong, Yoon Ja-sung, Tony Ahn, Jr. and Ahn Junggeun's bereaved family members.

A memorial ceremony for the 108th anniversary of Ahn Junggeun's death was held at the Sunnyvale Community Center in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on March 17 this year.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Ahn Junggeun Commemoration Association led by Yoon Ja-sung, the monumental event was

participated by some 100 dignitaries and ethnic Koreans in the region, including Ahn's great-grandson Tony Ahn, Jr. and other bereaved family members and Park Jun-yong, consul general at San Francisco. The ceremony was accompanied by a photo exhibi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7, the Ahn Junggeun

Commemoration Association have played a role of inheriting and promoting the patriotic spirits of Ahn. Yoon Ja-sung,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is the grand-daughter of Yoon Neung-hyo who supported funds to Ahn Junggeu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latter.

New York, U.S.A

Under the auspices of the New York branch of the Great Ahn Junggeun Society (President, Yoon Young-jae), a memorial ceremony for the 108th anniversary of Ahn Junggeun's death was held at the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ew York (KCS) on March 26 this year. The ceremony drew as many as 100 participants including ethnic Koreans in the region. They included Shin Won-sik, consul at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and Kim Seung-do, New York branch president of the Restoration Society. The New York branch of the Great Ahn Junggeun Society was launched in 2010.



프랭클린 D. 라우시 교수의 북리뷰



서평: 영문 안중근연구서(*Peace in the East*) 출간 2017년, 미국 렉싱턴 출판사에서

최근까지만 해도 영어권 학계에서 안중근의사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있다고 할 지라도 대부분 안 의사의

민족주의 정신과 이토 히로부미 살인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사상이 있었으며 살인 행위를 뛰어넘는 삶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중근은 평화'라는 주제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태진, 유진 Y. 박, 커크 W. 라슨이 공동 집필하고, 렉싱턴 출판사가 간행한 《동양평화: 일제 강점기하 안중근의 아시아 비전》은 안중근의사와 그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장에 수록된 글들은 안중근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다. 우선 쉬용은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일본과 서구의 제국주의와 안중근의 평화 구상을 분석했다. 서영희는 오늘

날 한국에서 논의되는 동양평화 담론의 계보를 안중근의 사상에 기원한 것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아마무로 신이치와 프랭클린 라우시는 안중근이 옥중에서 쓰기 시작해서 처형 직전 미완성으로 남긴 《동양평화론》에 얼마나 다양한 세계관이 반영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태진은 안중근이 중국에 미친 영향과 관련, 량치차오가 안중근의 이토 살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풍성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왕위안조우는 희곡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담화에서 안 의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집중했다. 또한 프레데릭 디킨슨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살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다루면서 안중근을 사이고 다카모리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과 비교했다. 또한 도츠카 에츠로는 1905년 을사조약의 합법성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안중근의 재판, 구체적으로 국제법에 따른 안중근의 법적 변호를 법원이 기각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사가와 노리카추와 마키노 에이지는 독특한 철학적 접근법으로 윤리 문제에 중점을 두어 안중근과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이 책은 학식이 깊은 학자부터 탐구심이 강한 학생 혹은 역사와 평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어떤 독자

라도 안중근의사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Book Review of *Peace in the East* : *An Ahn Junggeun's Vision for Asia in the Age of Japanese Imperialism*



Dr. Franklin D. Rausch
Professor of Lander University,
USA

Until recently there has been very little in English-language scholarship on Ahn Junggeun and what

has existed has mostly focused on his nationalism and his killing of Ito Hirobumi. However, while Ahn was certainly a nationalist and did indeed shoot Ito, there is much more to his thought than only nationalism, and much more to his life than that act. For instance, Ahn was deeply interested in the subject of peace and how to obtain it, not only for East Asia, but the entire world.

For these reasons, the publication of *Peace in the East*, a collection of chapters edited by Yi Tae-jin, Eugene Y. Park, and Kirk W. Larsen and published by Lexington Books in 2017,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ur knowledge of Ahn and his time. The chapters within this work place Ahn in his historical context, with Xu Yong analyzing Japanese and Western imperialism in East Asia and Ahn's understanding of peace, Suh Young-hee tracing a genealogy of the modern Korean discourse on peace in the East to Ahn, and Yamamuro Shinichi and Franklin Rausch examining how various worldviews shaped Ahn's "Treatise on Peace in the East," a document he began to write while he was in prison but was unable to finish before his execution. Ahn's impact on China is also included, with Yi Tae-jin fruitfully examining Liang Qichao's reactions to Ahn's killing of Ito and Wang Yuanzhou revealing how Ahn was presented

in Chinese narratives, including plays. Additionally, Frederick Dickinson examines Japanese reactions and draws comparisons with Japanese historical figures, such as Saigo Takamori. In fact, part of the defense offered by one of the Japanese lawyers appointed for Ahn involved making exactly such comparisons. Appropriately enough then, Totsuka Etsuro critically investigates the legality of the 1905 Protectorate Treaty and how it impacted the trial, in particular, the role it played in the court's rejection of Ahn's legal defense based on international law. Finally, Sasagawa Norikatsu and Makino Eiji take a distinctly philosophical approach, focusing primarily on ethics by investigating the connections between Ahn's thought and that of Immanuel Kant.

In addition to these excellent chapters, also included are a preface that explains the purpose of this work and its origins in a 2009 conference, as well as a scholarly introduction that provides an excellent and succinct overview of Ahn's life and times. Thus, taken together with the helpful illustrations and maps, someone who knew very little about Ahn Junggeun could, by reading this one book, not only come to a solid understanding of who he was and how he thought, but also be exposed to the most recent scholarship about him from scholars diverse in terms of discipline and nationality. Moreover, this work is very readable, in part thanks to the good work of the translators of the various chapters. I would therefore recommend this text to anyone who is interested in Ahn Junggeun, be they an accomplished scholar, an inquisitive student, or just anyone who wishes to think more deeply about history and the problem of peace. #

어머니의 눈물



한수정
(배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불일을 보러 시내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열려있는 편지함을 보았다.
 행여 응칠이 오라버니 소식이라도 온 걸까 하여
 사랑채까지 달려갔다.
 어머니는 편지를 쓰시는 모양이었다.
 옆에 앉아 먹을 갈아드리며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평소처럼 결연하고 담담한 무표정 속에,
 그 진한 흑갈색 눈동자 안에는
 알게 모르게 슬픔이 담겨 있었다.
 먹을 갈아도 갈아도 붓을 잡은 어머니의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떨리는 손끝이 써내려간 글자.
 大韓國人 安重根.
 그 다음 자가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종이 위론 토독토독 빗소리가 났다.
 글자는 지워지고 번져서 따뜻한 빗방울에 얼룩졌다.
 황급히 눈가를 비비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 장만 더 꺼내주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영영 어머니의 눈물을 볼 수 없었다.
 영영.



* 위 작품은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 제16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운문 부문 대상 수상작입니다.

愛天 안중근, 하늘을 사 / 랑 / 하 / 다

- 18 특별인터뷰
- 23 나의 스승 나의 인생
- 26 역사 편지

안중근의사 ‘옥중 자서전’은 솔직하고 담백

최서면(국제한국연구원 원장)

이영옥(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특별대담

-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3국 경제공동체 구상 -

한국과 일본의 민간 대화채널인 ‘한일포럼’이 2016년 신설한 한일포럼상 제2회 수상자인 국제한국연구원 최서면 원장(90).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안중근의사 연구 전문가이다. 지난해 3월 평생 수집한 안중근의사 관련 자료 1,000여 점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에 기증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이영옥 관장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실에서 만나 옥중 자서전과 동양평화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이하 이 관장): 원장님은 일생을 안중근의사를 깊이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안 의사 알리기에 노력하셨습니다. 웬만한 한국인이라면 안 의사를 잘 안다고 할 테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념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 ‘안중근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한 지원자의 설문조사 발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중근의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느냐”고 물었더니, 100명 중 40여 명이 답을 했는데 ‘동양평화주의자’ 정도의 대답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저 ‘탕탕탕’, ‘이토 살해’, ‘손가락 단절’ 등 이었습니다. 안 의사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이해도가 너무 낮아 안타깝지만 합니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이하 최 원장): 관장님의 질문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문제에 관한 것이군요. 1910년을 전후하여 시작한 독립운동은 자기 문화를 갖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민족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보다는 폭탄을 던져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장님처럼 역사를 크게 보는 분들은 큰 불만일 수밖에 없지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기념관은 행사가 없음에도 아버지와 아들, 할머니와 손자 등 많은 사람이 스스로 찾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는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은 해도 할머니와 손자 등이 옛날 얘기하며 찾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독립기념관 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하는 역사적인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안 의사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이라고 먼저 나와요. 하지만 조지 워싱턴, 잔다르크

는 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누구도 그들을 살인자,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안 의사를 비롯하여 독립투쟁하신 분들을 어떤 위상에 두어야 하는지, 그것이 그분들을 선양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 의사가 살인을 했다고보다 이토를 죽임으로써 수십만 명의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안 의사의 발상이었다는 거죠.

이 관장: 안 의사의 옥중 자서전 제목이 《안응칠 역사》인데요. 안 의사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 살해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안 의사에 대한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이 책의 원본을 일본이 유족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했고, 1969년 뒷골목 헌책방에서 원본이 아닌 번역 필사본이 우연히 발견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이 자서전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옥중에서 감시를 받고 쓴 것이니 조심했을 것 같아요.

최 원장: 자서전은 감시를 받고 쓴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했어요. 자랑거리 마음껏 쓰고 네가 얼마

나 똑똑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 길렀는지 그런 이야기지요.

이 관장: 책을 펼치면, 출생에 이어 곧바로 16세 청년이 되어 있어요. 당시 16세이면 이미 결혼하던 나이 아닙니까? 어린 시절을 이렇게 건너뛴 정도로 내용이 없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대를 지내는 동안 독서량이나 주변 어른들의 가르침 등이 상당했을 것이고, 이것들이 안 의사의 품성과 생각의 바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가 하면, 폭력사건이나 사고, 갈등 같은 것은 비교적 상세히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 책이 과연 안 의사가 옥중에서 쓴 그대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일제에 의한 왜곡이나 훼손은 없었던 것 일까요?

최 원장: 옥중 자서전은 첫째 쓸데없이 자랑하는 게 없고 겸손해요. 누군가 안중근 전기를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물어오면 안중근 전기는 옥중 자서전 이상의 교과서는 없다고 말해 줍니다. 옥중 자서전은 가장 겸손하고 정직하게 쓴 책이다. 그렇게 믿어서도 좋아요.

이 관장: 자서전에는 천주교 전도 내용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자신이 운영한 학교와 관련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를 세우고, 경영난에 빠진 동의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거 전후하여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자세해요. 물론 새로운 사실은 없고 모두 이미 조사가 끝난 내용들이죠. 동의단지회 관련 동지들의 이름은 (일본)사람들을 헛갈리게 하려고 이름을 바꿔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의사가 명석한 분이라 꼬투리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넣지 않으면서 행간에 자신의 생각을 담았을 것 같아요.

최 원장: 복권이나 만인계, 여자 폭행 이야기는 조금도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썼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깨끗한' 자서전은 없어요. 자서전은 대개 자기 자랑만 잔

뜩 써놓는데, 이렇게 자기 자랑 없는 책은 없습니다.

이 관장: 다 드러내 쓰셨다고 말씀하지만, 내적으로 고민했을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아요. 천주교 교리는 많이 설파하면서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얼마만한 고뇌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안 의사가 그 행위에 대해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궁금해요. 자서전을 꼼꼼하게 읽으면 이에 관해 어떤 비밀을 찾을 수 있나요?

최 원장: 안중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수사의 기본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큰 반일단체가 안중근을 뽑아 암살을 지시했다, 그곳에 사람을 보내 관련자를 색출하라는 것이었어요. 통감부에서는 간도출장소 소장을 지낸 육군헌병 중령을 스님 변장을 시키고 통역으로 경부(하위 경찰관직)를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요. 그런데 (의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조직적이지 않아요. 안 의사가 의병 활동한 것은 조직적인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에는 조직성이 없어요. 안 의사가 마지막에 단지동맹을 한 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으니, 단지동맹을 굉장한 단체로 알고 수사를 해요. 그러니 옥중 자서전에 대해서는 이런 의심을 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게 좋을 듯해요. 옥중 자서전은 드물게 정직하고 드물게 겸손해요.

이 관장: 네. 자서전에는 이토의 죄목을 열거하며 그 뜻을 밝히고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결심을 하기까지의 고뇌 부분이 빠져 내면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일본정부 관계자들이 '테러리스트다, 살인자'다 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안 의사에 대한 누명을 벗겨드리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제거하여 수만 명의 희생을 막았다는 설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의사가 취조 받으며 간수에게 써준 「안응칠 소회」는 안 의사가 일중

의 평화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났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각자 천부의 품성을 갖고 제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로 되어 있던데요.

최 원장: 그 시점에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관계가 없어요. 그 시점은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냐가 포인트예요. 첫째는 구국(救國)이고 둘째는 어떤 구국이나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생각하고, 중국도 생각하는, 이것이 '동양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동양평화로 받은 게 아니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으로 받지요.

「동양평화론」 서론·「전감」 일부·「청취서」 4개 국어로 번역 중

이 관장: 그럼 「동양평화론」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최 원장: 재판이 끝난 후 사형수인 안 의사가 고등법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안 의사가 '너희는 내가 상고할까 봐 떨고 있잖아. 내가 하는 얘기를 전부 듣고,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면 상고 안 하겠다'고 해서 3시간을 만났어요. 그 면담내용에 「동양평화론」이 있어요. 김정명 씨가 찾아 발표한 서문은 서문일 뿐이고, 법원장을 만난 면담내용에 동양평화론의 전체가 들어있어요.

이 관장: 이번에 기념관에서 「동양평화론 서론」, 「전감」 일부와 「청취서」를 엮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4개 언어로 번역해 출간할 예정입니다.

최 원장: 동양평화론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양평화론을 주장하여 안중근의사를 존경한다 하지만, 동양평화론은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보다 먼저 얘기했고, 이홍장이 더 먼저 얘기했어요. 침략자도 동양평화론자이고, 당한 자도 동양평화론자인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가기 전 다롄에서 이야기한 동양평화론

과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비교해야 합니다. 안중근의사 혼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서문에는 평화론 얘기가 없었고, 고등법원장과 얘기 중에 나와요.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의사가 접촉한 알자스 로렌 출신의 프랑스 신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한이 맺힌 평화론이죠. 동양평화론을 덮어놓고 훌륭하다 하는 사람은 봤지만, 전문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못 봤어요.

이 관장: 동양평화에 대한 논문만 해도 수십여 편이 넘는 거 같은데요.

최 원장: 알자스 로렌 때문에 EU가 생기고 EEC(나중에 EC로 확대)가 생깁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100년 동안 전쟁만 하다 끝낼 것인가, 우리가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싸운 원인은 알자스 로렌의 철광석과 석탄을 누가 갖느냐입니다.

이 관장: 그게 꼭 뤼순의 상황과 비슷하군요. 러시아군과 일본군 그리고 청나라가 차례로 차지했다가 갈등과 분쟁의 중심지가 되니까 그곳을 평화지역으로 중립지로



만들자, 그것이 안 의사의 생각이지요. 안 의사가 얘기한 것도 경제공동체요.

최 원장: 그렇죠. 경제공동체는 내가 안 갖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조선 먹을 생각 하지 말고, 조선도 일본 먹을 생각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안갯기 운동'으로, 이것이 안 의사가 일찍이 만든 소중한 평화사상입니다.

이 관장: 제가 안 의사 「청취서」와 동양평화론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은 것은 한·중·일 3국 청년들로 하여금 2개국어 이상을 배우게 하여 평화유지군을 상설해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면 민족 갈등, 문화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최 원장: 아주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장: 안 의사가 언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외국어를 하면 정보의 통로가 생기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화유지군 발상 신선...

안중근 관련 천주교 자료·연구 미흡

최 원장: 안중근 연구나 어떤 위인을 연구할 때에 근거 없는 내용은 절대로 주장하면 안돼요.

이 관장: 원장님은 객관적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지만, 앞으로도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요? 러시아, 중국이나 특별히 뤼순에요? 뤼순에 《안응칠 역사》 원본이 있을까요?

최 원장: 안중근 연구는 여느 개인 연구수준보다 훨씬 높게 와 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연구해야 해요. 우선 사형선고가 났을 때 천주교는 매장과 관련해서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흥 신부가 뤼순에 갔다하고 끝이지만, 현재 일본 외무성에 안중근 관계 전보가 7통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사형이다, 천주교 신자는 종부성사를 받아야 하니 신부 보내라, 전보를 받은 사람은 뫼텔주교예요. 서울주교가 신부

를 보내려면 봉천교구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도 찾을 수 없어요.

이 관장: 봉천교구 가서 찾아봐야 하나요?

최 원장: 그렇지요. 내가 갔을 때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그 때는 공산치하였으므로, 지금은 모르죠. 서울교구 신부가 봉천교구에 속하는 뤼순에 가서 허가 없이 천주교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이 관장: 빌렘 신부가 명령을 어기고 안 의사의 종부성사를 거행하셨죠.

최 원장: 종부성사를 받은 것은 신부하고 개인이 한 것이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요. 이 사건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교가 가면 안 되는데 갔기 때문에 신부가 벌을 받았다는 것이고, 재판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겼는데 왜 프랑스에 가서 여생을 보냈느냐? 이런 것도 해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연구해야 돼요.

이 관장: 연구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안 의사와 알자스 로렌 출신 빌렘 신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요?

최 원장: 빌렘 신부가 고향의 조카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신문기자가 조카딸을 만나고 와서 신문에 발표한 일이 있어요. 다들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아주 중요해요.

이 관장: 러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최 원장: 안중근 의거가 러시아 관할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러시아가 재판을 직접 해야 하는데 왜 곧바로 일본에 안 의사를 인도했나 하는 것만 조사하면 됩니다.

이 관장: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과의 대담은 안 의사에 관해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할 저술, 즉 「안응칠 소회」와 《안응칠 역사》 그리고 「동양평화론」의 내용을 담은 「청취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한 번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중근의사의 정신적 스승 빌렘 신부



안중근의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니콜라 조셉 마리 빌렘(Nicolas Joseph Marie Wilhelm, 1860~1938, 세례명 요셉) 신부다. 그는 안 의사가 순국할 때 고해성사를 집전했으며, 안 의사의 영향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가졌다. 안 의사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니콜라 빌렘 신부를 통해 안 의사의 삶을 엿들러 살펴봤다.

알자스-로렌 출신으로 조선에 부임하다

빌렘 신부는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으로 조선교구 선교사로 부임한 사제이다. 당시 프랑스령 알자스-로렌 지방의 슈파이헤른에서 태어나서 1881년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883년 2월 17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1888년 말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조선교구로 배속되었다. 이때 지은 한국명은 홍석구(洪錫九)로 안중근의사는 《안응칠 역사》에서 빌렘 신부를 '홍 신부'라 지칭했다. 1889년 2월 한국에 입국하여 7월 1일 제물포 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되었으며, 1890년 11월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교수로 전임되어 활동하다가 프랑스 국적 취득 문제로 1893년 8월에 교수직을 그만 두고 그해 말 프랑스로 돌아갔다.

당시 국제정세를 잠시 살펴보면,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된 독일이 1871년 프랑스를 상대로 한 보불전쟁을 승리하고 독일제국을 선포하였다. 이때 그의 고향 알자스-로렌이

독일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국적상 독일 국민이 된 빌렘 신부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적 취득이 필요했다. 사실 빌렘 신부는 어려서부터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지만, 본인은 항상 스스로를 프랑스인으로 생각했다. 후일 빌렘 신부가 한국의 독립문제와 안중근의사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국제정세를 몸소 체험한 것이 아닐까 유추된다.

황해도 지역 선교에 앞장서다

국적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로 떠난 지 1년 6개월 만인 1895년에 빌렘 신부는 다시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그해 10월에 갯등이(현 왕림) 본당의 임시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1896년 4월에 있는 성직자 연례 피정 때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사목 분할이 결정됨에 따라 황해도는 빌렘 신부가 전담하게 되었다. 이 무렵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 일대에서는 빌렘 신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황해도 지역의 유지인 안태훈(세례명 베드로) 일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

종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안중근의사의 부친인 안태훈 진사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군량미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어려움을 겪던 중, 1896년 명동성당으로 피신하여 천주교 교리를 습득하고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이를 인연으로 그해, 빌렘 신부는 안태훈 진사와 함께 120권의 천주교 교리문답을 갖고 청계동으로 오게 되었다.



▲ 청계동의 천주교 신자들

그런데 천주교의 활발한 개종 운동을 우려하던 지방 관리들이 천주교 신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신자들이 늘어났다. 곧은 성격을 가진 빌렘 신부는 치외법권이 있는 선교사였으므로 교회 측과 관리들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여 직접 항의 서한을 작성하여 관(官)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신천(信川), 장연(長淵) 등 여러 고을 주민들이 그의 편지와 명령을 받은 교인들로부터 행패를 당하였다는 고소를 관가에 제기하면서 '해서교안(海西教案)'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후 교안(천주교 소송사건)은 점차 지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까지 천주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등 1903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1904년 프랑스공사와 외부대신 사이에 선교조약이 체결된 후 신교(信敎)자유가 완전히 허용되며 교안사는 자취를 감췄다.

안중근의사와 영향을 주고받다

해서교안을 겪은 뒤에도 계속 청계동에서 활동한 빌렘 신부는 안태훈 진사의 장남 안중근의사(세례명 토마스)와 함께 전교 활동을 하면서 구국 교육에도 앞장섰다. 1897년 1월 빌렘 신부는 안중근의사를 비롯하여 숙부, 사촌 등

일가친척과 청계동 및 인근 마을사람 등 모두 33명에게 함께 세례를 주었다. 이 해 말 청계동을 방문한 뮌텔(한국명 민덕호) 주교를 안중근의사와 함께 해주까지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1898년에는 황해도 매화동분당 청계동공소에서 청계동 분당으로 승격되어 청계동 분당신부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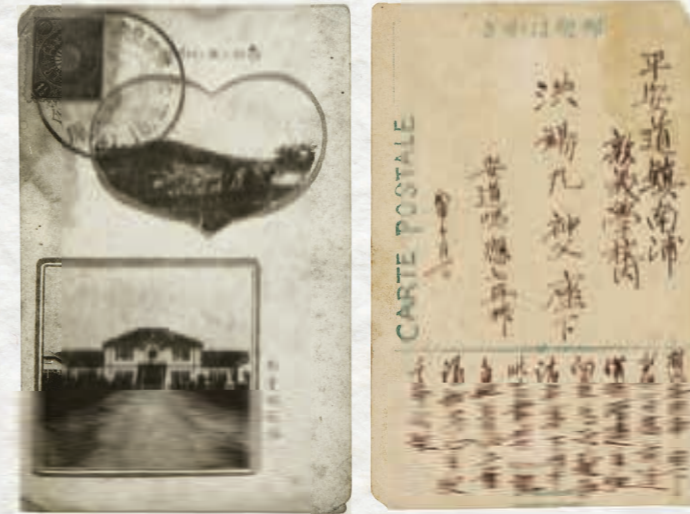
이때 안중근의사는 청계동 분당에서 숙부 안태건(安泰健, 가밀로) 회장과 함께 교회 일에 헌신하였으며, 분당신부로 부임한 빌렘 신부를 따라 미사 복사를 맡았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 때까지 안중근의사는 황해도의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교활동을 활발히 펼치게 된다. 안중근의사는 빌렘 신부를 도와 전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빌렘 신부를 통해 천주교 신앙뿐 아니라 서양의 근대사상과 문명 지식도 배울 수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프랑스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족 운동과 독립 운동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빌렘 신부는 안중근의사로 인해 인식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안중근의사는 전도 시 천주교를 믿으면 문명국을 만들 수 있으니 나라를 문명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천주교를 믿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안 의사에게는 천주교를 믿는 이유가 문명인이 되기 위해서이자 나아가 한국을 문명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안응칠 역사》에 의하면 뮌텔 주교가 안중근의사가 제안한 한국인을 위한 대학 설립을 거절하자, 안중근의사는 “교의 진리는 믿을지언정, 외국인의 마음은 믿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즉각 불어 배우기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뤼순으로 찾아가 평화와 안식을 기원하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의거를 성공시킨 안중근의사는 뤼순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정치적 쇼에 불과했던 불법적 재판이 일제에 의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의사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910년 3월 7일 빌렘 신부는 직접 세례를 준 안중근 토마스를 위해 뤼순에 도착하였다.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안중근의사를 면회한 빌렘 신부는 안중근의사의 청대로 평화와 안식을 기원하는 종부성사를 베풀어줌으로써 안중근의사로 하여금 신자로서의 마지막 길을 걷게 해주었다.



▲ 안 의사가 빌렘신부에게 보낸 엽서(1908년 10월): 평안도 진남포 돈의학교 내 홍석구 신부 작하, 안도마 응칠 재배라고 되어있음

빌렘 신부의 이 같은 뤼순 방문은 교구장인 뮌텔 주교의 뜻을 거스른 행동이었고, 허락 없이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뮌텔 주교로부터 2개월간의 성무(聖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의사에게 성사를 준 빌렘 신부는, 이후에도 안중근 일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뮌텔 주교와 불화가 계속되어 마침내는 한국을 떠나 1938년 사망할 때까지 고향인 알자스에서 지냈다.

1910년 3월 11일 빌렘 신부가 정근, 공근 두 동생과 함께 안중근의사를 마지막으로 면회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사형선고 다음날인 2월 15일에 안중근의사는 빌렘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

“예수를 찬미하옵니다. 자애로우신 신부님이시여, 저에게 처음으로 영세를 주시고 또한 마지막에는 수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곳에 특별히 와 주시어 친히 모든 성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야 말로 어찌 다 사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종략-
끝으로 자애로우신 신부님이 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910년 경술 2월 15일 죄인 도마 올림”

요컨대 빌렘 신부와 안중근의사 두 사람의 만남은 신앙에서 비롯됐지만 신앙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다. 선교로 이어졌고, 애국계몽운동, 대학 설립 추진, 급기야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 접견으로 이어졌다.

천주교의 핵심가치인 ‘평화’라는 명제가 안중근의사에게는 영혼과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양평화라는 현실의 평화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빌렘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80주년이 되는 이때에, 순국 직전 마지막 말씀으로도 ‘동양 평화’ 삼창을 원했던 안 의사에게 평화라는 씨앗을 심어 준 사람이 바로 빌렘 신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이야기 동풍신 열사님께



본지에서는 독립운동, 광복, 독립투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담기 위해 '역사 편지' 코너를 마련했다. 그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한 독립투사 이야기를 일선 변호사의 시선으로 살펴봤다.

동풍신 열사님! 제가 처음 열사님을 만난 것은 이윤옥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입니다.

<남에는 유관순, 북에는 동풍신>

천안 아우내장터를 피로 물들이던 순사놈들
함경도 화대장터에도 나타나
독립을 외치는 선량한 백성 가슴에
총을 겨눴다

그 총부리 아버지 가슴을 뚫어
관통하던 날
열일곱 꽃다운 청춘 가슴에
불이 붙었다 (하락)

이윤옥 시인이 열사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토해낸 시입니다. 이 시인은 동풍신 열사와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 운동으로 순국하였고, 또 순국할 때 나이가 비슷했던 점 등으로 두 분을 같이 놓고 시를 썼더군요. 저는 이 시인의 시를 읽기 전에는 동풍신 열사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 남한에서는 이토록 열사님에 대해 무관심 한 것일까요? 열사님이 지금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함경북도 하가면에서 만세운동을 했기 때문인가요? 열사님이 일제의 잔혹한 손길에 숨을 거두실 때에는 도대체 남한이니 북한이니 하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을 때 아닙니까?

동풍신 열사님!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열사님께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의 경직된 사고로 동풍신 열사님처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독립투사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풍신 열사님을 비롯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런 평가를 바라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옥 시인은 위 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지요.

보라
남과 북의 어린 열일곱 두 소녀
목숨 바쳐 지킨 나라
어이타 갈라져 등지고 산단 말인가
남과 북 손을 부여잡고
다시 통일의 노래를 부를
그날까지
남이시여
잠들지 마소서



양승국 변호사는...
안중근아카데미 2기를 수료하고 안중근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양승국 변호사의 산 이야기》, 《중년에 떠나는 인문학 여행》 등이 있다.

愛族 안중근, 겨레를 사 랑 하 다

28 역사를 찾아서
30 안중근을 말하다

안중근의사 유적지 답사기 다렌·뤼순·하얼빈을 가다!



지난 4월 봄 필자에게 답사의 행운이 찾아왔다. 14기 안중근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함께 안중근의사 관련 유적지인 다렌·뤼순·하얼빈 답사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다. 더욱이 올해 대구가톨릭대 안중근연구소장직을 맡은 후 첫 답사였던 터라 필자의 마음은 떠나기 전부터 설레었다.

박 주(대구가톨릭대 안중근연구소 소장)

뤼순에서 안중근의사의 숨결을 느끼다

4월 25일 다렌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50분 정도 달려 첫 답사지인 뤼순감옥에 도착했다. 뤼순은 ‘여행 중의 평화’를 뜻한다고 한다. 안중근의사는 하얼빈에서 체포돼 남만주철도 열차를 타고 뤼순감옥으로 이동해 11월 3일에 수감됐다. 뤼순감옥에 도착하니 이국적인 하얀색 건물이 눈앞에 서있었다. 뤼순감옥 건물은 1902년에 러시아가 세운 건물인데 러·일전쟁 후 일본이 뤼순을 지배하면서 1907년 뤼순감옥을 붉은 벽돌로 확장해 253개 감방에 2천 명 정도를 수감했다고 한다. 주로 중국인이 수감됐으며, 한국인 애국지사도 수감된 자 중에는 안중근의사가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안중근의사의 애국정신을 한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배워야한다”는 말로 끝마친 뤼순감옥 부관장의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붉은 벽돌의 감옥이 여러 채 있었고 붉은 벽돌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서대문형무소와 비슷했다. 검신실과 여러 개의 감방을 지나 안중근의사를 구금했던 감방이 나왔다. 안중근의사 감방에는 낮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작은 침상이 있었다. 벽면에는 다음

과 같은 설명이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적혀 있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했다. 그해 11월 3일 뤼순감옥으로 압송된 뒤 순국할 때까지 144일간 이 곳에 머물렀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일본 침략자들과 격렬한 설전을 벌였으나 절대 굴하지 않았으며 불후의 명작인 《동양평화론》 서문과 자서전인 《안응칠 역사》를 저술해 후대에 남겼다. 그가 남긴 200여 점의 붓글씨에는 해박한 지식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담겨있다.”

드디어 안중근의사께서 순국하신 사형장에 이르자 일행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며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렸다. 그리고 안중근의사의 교형이 집행된 방을 보았는데 이 방은 안중근의사가 묘지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다. 사형집행 후 시신의 검안이 있었고 우덕순·조도선·유동하 3명으로 하여금 시신을 확인하게 했다고 한다. 방에는 안중근의사의 사진과 국화꽃이 놓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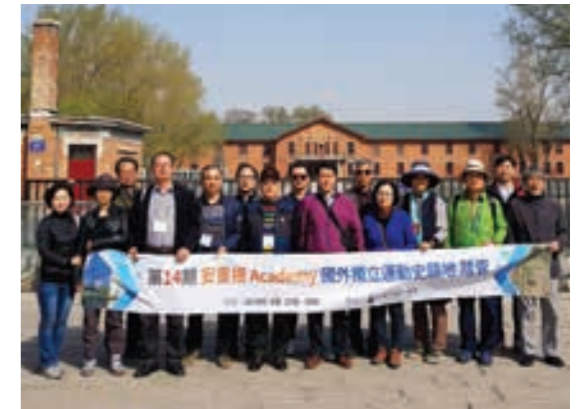
이어 안중근의사의 재판장소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재판정 안에 들어서니 이곳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가지를 나열하며 의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안중근의사의 당당한 풍모를 느낄 수 있었다.

안중근의사 의거의 현장 하얼빈을 목도하다

하얼빈역은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역사적인 장소인데, 아쉽게도 하얼빈역 의거 장소는 2017년 3월부터 오는 2020년까지 개축공사로 인해 버스 안에서 창문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의거현장을 답사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고 공사가 완공되면 다시 한 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원래 하얼빈역 내 의거장소 근처에 있었지만 개축공사로 인해 임시 조선민족예술관 건물로 옮겨졌다. 기념관 로비에는 안중근의사 흉상과 안중근의사의 의거 장면, 단지한 왼손,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 등을 길게 부조로 만들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전시물 가운데 당대 주요 중국의 지도자들이 안중근의사 의거를 칭송한 글들이 전시된 점이 눈에 띄었다. 공통적으로 당시 3억이나 되는 많은 중국인들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하얼빈 공원으로 향했다. 안중근의사의 최후의 유언에 등장하는 하얼빈 공원은 중국의 항일 영웅이었던 하얼빈 출신의 이조린(1910~1946) 장군의 이름을 본떠 조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공원 내에는 안중근의사께서 옥중에서 쓰셨던 ‘靑草堂(늘 푸른 연못)’ 유목비가 세워져 있었다. 안 의사는 하얼빈에서 김성백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근처에 있는 하얼빈 공원을 3일 동안 거닐며 거사를 구상했다고 한다. 이 날 하얼빈 공원에는 4월의



화창한 봄 날씨로 연녹색의 수양버들이 우거지고 벚꽃이 만발하여 무척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우리는 일본 총영사관 옛터로 이동했다. 지금은 초등학교(花園小學校) 건물로 바뀌어 외관만 볼 수 있었다. ‘日本領事館原址’라는 동판이 새겨져 있었다. 안중근의사는 19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일본 총영사관 지하실에 격리 수용돼 있었던 것이다.

안중근의사 유적 답사의 소회

답사기간 동안 이주화 학예과장의 열정이 넘치는 설명과 안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충만한 안중근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열기, 여기에 날씨까지 좋아 더욱 뜻깊은 답사를 마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친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동양평화 정신을 본받고 실천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신채호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를 기억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안중근의사를 비롯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인이 본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 평가

동양평화와 영구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년을 맞아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연구했던 마키노 에이지(70) 일본 호세이대 철학과 교수가 방한했다. 그는 안중근의사 추모식 참석 후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일본인이 본 안중근의사의 평화 사상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중 주요내용을 요약,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 소개한다.

안중근의사와 동양평화론에 대한 엇갈린 평가

한국에서는 안 의사의 의거와 동양평화론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안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서 안중근의사는 일본의 초대 내각총리대신이자 한국 통감을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안 의사를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선 구국의 영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정반대로 보는 견해가 많다. 아베 신조 내각은 “안중근의사는 범죄자며 테러리스트다”라고 표명하기까지 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내각의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의사와 한국민을 비난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된 원인 중 하나다.

이번 강연은 안중근이라는 인물과 평화사상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과 평가를 담았다. 이를 통해 동양평화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단서를 찾고자 노력했다. 이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안 의사와 그의 평화사상이 정당하게 평가될 때, 비로소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될 것이라 믿는다.

뤼순감옥·법원 관계자 및 유족의 대응

① 뤼순감옥과 법원 관계자의 평가

뤼순 감옥과 법원의 관계자들 사이에는 한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하나 같이 안 의사를 존경했다는 공통점이다. 일례로 구리하라 사다키치 뤼순 감옥소장은 히라이시 고등 법원장과 마나베 재판장에게 안 의사의 구명을 탄원했다. 하지만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리하라는 안 의사가 처형된 직후 감옥소장 직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법원 검사인 야스오카 세이시로는 딸 도시코에게 “안 의사는 일본인에게는 원수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진정한 애국자다”라고 말했다. 안 의사에게 받은 유묵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을 “후세에 반드시 전해 달라”고 말했다. 도시코는 태평양 전쟁 중 미군 공습시에도 유묵을 지켰다.

그런가 하면 육군 헌병 치바 도시치는 뤼순 감옥에서 안 의사가 순국할 때까지 간수로 일했다. 그는 안 의사를 마음 속 깊이 존경했다. 일본 귀국 후 도시치는 안 의사의 처형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순국 직전 받은 유묵 「위국헌신군인본분(為國獻身軍人本分)」을 유족이 한국으로 반환했다. 치바 도시치는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결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저항운동으로 의거였음을 자각했다. 그는 한국을 점령한 가해국 국민으로서 안 의사와 한민족에게 사죄했다.

② 「대역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평가

안중근의사가 순국한 1910년, 그해 12월 천황 암살계획을 시도한 ‘대역사건’이 발각됐고 관계자 전원이 처형됐다. 훗날 이 사건은 한일합방을 추진한 가쓰라 다로 수상 등에 의한 조작사건임이 밝혀졌다. 이때 대역사건의 주모자였던 고토쿠 슈스이는 체포 당시 가방에 안중근의사의 사진이 들어간 그림엽서를 갖고 있었다. 엽서에는 「**舍生取義(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며) 殺身成仁(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安君一挙(안군의 일거로) 天地皆震(천지가 모두 흔들린다)**」라는 문장이 수기로 적혀 있었다.

이에 앞서 안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뒤 재판받을 때 그의 변호를 맡은 관선 변호인 미즈노 기치타로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일본의 법률로 재판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형법으로 재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무죄가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일본 형법으로 재판했을 경우에도 살인죄로서는 가장 가벼운 징역 3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중근의사는 미즈노 기치타로에게 감사를 표해 유묵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仁成)」을 보냈다. 그림엽서의 문장은 안 의사의 이 유묵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③ 도쿠토미 로카의 평가

메이지·다이쇼기에 활약한 소설가 도쿠토미 로카. 그는 1913년 10월 16일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중국 다롄을 여행하던 중 친구로부터 한 폭의 유묵을 받았다. 이 유묵은 「빈이무침부이무교(貧而無諂富而無驕)」로 이 글 또한 안중근의사의 다른 유묵들처럼 유교사상을 담고 있었다. 한일합병이 강행된 것은 1910년 8월 이었고 도쿠토미 로카가 다롄을 방문한 것은 고토쿠 슈스이가 처형되고 3년 뒤였다. 도쿠토미 로카는 유묵의 선단에 입수경위와 문장내용, 안 의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썼는데 이는 안중근에 대한 공감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였다. ♪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일본 호세이대 교수
전 동아시아칸트학회 회장

평소부터 한국의 안중근의사에 관심을 가졌던 마키노 에이지 교수는 2006년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한데 이어 당년 9월 일본 미야기현 대림사 법요에 참석해 「안중근의사와 미즈노 기치타로(水野吉太郎)」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안중근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의거 100주년을 기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비교 분석한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안중근과 임마누엘 칸트의 평화사상」《法政大學文學部紀要》 등 수 편의 간행물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마키노 교수는 안 의사의 유묵 반환 및 유해발굴을 위한 일본 내 자료조사 등 안중근의사를 평가하고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한 지식인이다.

日本人から見た 安重根の平和思想の 評価

東洋平和と永遠平和の実現のために

2018年3月26日、安重根義士殉国108周年を迎え、安重根義士の東洋平和論を研究してきた牧野英二(70)日本法政大学哲学科教授が訪韓した。彼は安重根義士追悼式出席後、ヨンセ大学学術情報館で日本人の見た安重根の平和思想評価をテーマに講演した。その内容の主要内容を要約、上・下半期の二回に分けて紹介する。

1. 安重根義士の人物及び東洋平和論に対する対照的評価

本稿で筆者は、世界の平和を危機に陥れてきた東アジアの現状を念頭に置いて、対立する諸国間の融和に資するヒントを提案したい。そのために筆者は、現在が過去と未来との間にある限り平和な未来の実現のために、過去にさかのぼり、とくに韓国と日本との関係に焦点を絞って問題を提起したい。そこで、東洋平和論の構想を展開した大韓国人・安重根義士に目を向けてみたい。韓国では、安重根義士の義挙と東洋平和論の重要性を知らない人はいないと推測する。日本でも、近年は安重根の名前を知らない人はほとんどいない。

ただし、その理由は、まったく逆である。韓国では安重根は、日本の軍国主義による植民地支配に抵抗し初代の内閣総理大臣で韓国統監を務めた伊藤博文(Ito,Hirobumi)を射殺した救国の英雄である。他方、日本では安倍晋三(Abe,Shinzou)内閣の閣議決定による「安重根は犯罪者であり、テロリ

ストである」という表明により、国民の多くは伊藤博文射殺の正確な理由も知らないまま、この閣議決定を信じ込んで安重根と韓国民を非難し「近くて遠い国」の原因の一つになってきた。

本稿の狙いは、安重根義士の人物と平和思想に対する日本人の評価を通して、東洋平和と世界平和の実現に向けた手掛かりを探究することにある。そのため第一に、安重根裁判にかかわった日本人による安重根の人物と思想の評価を考察する。第二に、近代日本を代表する文学者・思想家たちによる安重根評価に立ち入る。第三に、安重根義士の平和思想に対する近年の日本人の評価を明らかにする。

日本国内では、安義士の死後100年以上の間、彼の人柄と平和思想に対する評価は、相反する対照的な評価に分かれてきた。彼の人物と平和思想が正当に評価され、日韓両国民の間で共有されるようになれば、「近くて遠い国」は「近くて近い国」にな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2. 旅順の監獄及び裁判所の関係者と遺族の対応

① 旅順刑務所や裁判所の関係者の評価

安義士が囚われていた旅順刑務所や裁判所の関係者は、彼の伊藤博文射殺の真意や東洋平和思想、そして彼が崇高な優れた人物であることが分かってくると彼を尊敬するようになった。たとえば、栗原貞吉(Kurihara,Sadakichi)・典獄(旅順刑務所長)は、「平石(Hiraisi)高等法院長や真鍋(Manabe)裁判長と会い、安重根の助命を嘆願したこともあり、安重根に魅せられた役人の一人であった」(斎藤充功著《伊藤博文を撃った男—革命義士安重根の原像》時事通信社、1994年、p.122.)。

栗原貞吉は、安重根が処刑された直後、刑務所長職を辞して日本に帰国した。栗原が役人を辞めた理由は、「あんな立派な人物[安重根]を救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は自分に力がなかったことと、監獄の役人の限界を知らされたことで、随分悩み、それで役人を辞めた」(上掲書、p.124.)とされている。栗原の死後、娘の房子(Husako)は安義士の鎮魂を祈り、嫁ぎ先の今井(Imai)家に「安重根稲荷神」(別の説によれば「安重根大明神」)を建て、安重根の霊を慰めた。栗原典獄や娘の房子は、獄中の安重根の人柄と命を賭けて祖国を救おうとした志の崇高さに心から尊敬した日本人であった。

また裁判所検事の安岡清四郎(Yasuoka,Seisirou)は、娘の俊子(Tosiko)に、「安重根は日本人には仇敵だけれども、韓国人としてみる時は二人とない立派な愛国者である」と語り、安重根から贈られた遺墨「国家安危勞心焦思」(国家の安泰と危急存亡の秋を心配して気をもませるという意味の書)を後世に無事保存するよう伝えた。娘の俊子は、太平洋戦争中の米軍による空襲の時も遺墨を

安全に保管するよう苦労したという。そして俊子が70歳に達した機会に韓国にこの遺墨を返還しようと決心した。

さらに宮城県栗原市出身の陸軍憲兵であった千葉十七(Chiba,Touhichi)は、旅順監獄で安義士が処刑されるまで看守役の任務についていた。二人の間には、ある種の友情が芽生え、千葉は、安義士を心底尊敬するようになった。日本に帰国したのち、千葉十七は、生涯、安義士の処刑を反省し、遺墨を拝み続け、彼の死後、処刑直前にしたためられた遺墨「為國獻身軍人本分」が遺族により韓国に返還された。

千葉は、安義士による伊藤博文射殺という行為が、個人的な恨みではなく、救国のための抵抗運動であり、愛する家族や未来世代の民族の救済のための義挙であったことを自覚した。さらに千葉十七は、韓国を占領支配した加害者側の人間として、生涯、遺墨を拝み続け、安重根義士や韓国民に謝罪し罪責の念をもち続けたといわれている。

② 「大逆事件」に関連した人物たちの評価

安義士が処刑された同年1910年12月に幸徳秋水(Koutoku,Shuusui)を主犯とする「大逆事件」(明治天皇暗殺計画)により関係者全員の死刑が求刑され、1911年1月、幸徳を含む12名が処刑された。幸徳秋水が逮捕時に所持していたカバンには、彼の友人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民社の岡繁樹(Oka,Sigeki)が作成した安重根の写真入り絵葉書が1枚残されていた。そこには、「秋水題」という署名入りの漢詩が印刷されていた。「舎生取義(生をすてて義をとり) 殺身成仁(身をころして仁をなす) 安君一挙(安君の一挙) 天地皆震(天地みなふるう)」という文章である(神崎清著《革命伝説 大逆事件》第3巻、芳賀書店、1967年、pp.156-157.)。

安重根がハルビンで伊藤博文を射殺したのち、旅順での裁判のさいに、安重根の官選弁護人を務めた水野吉太郎(Mizuno,Kichitarou)は、法廷で安重根を弁護して、この事件は、日本の法律で裁くべきでなく、韓国の刑法で裁くべきであり、そこには該当する条規がないので無罪が妥当である。また日本の刑法で裁くとしても、安重根の行為は、国を憂いて偽りのない、まごころをもって行なった点では、幕末の志士と変わらず尊い行為である、と水野は考えた。

そこで水野弁護人は、日本の刑法で裁いた場合でも、殺人罪としては最も軽い懲役3年が妥当であると主張した。安義士は、水野吉太郎に感謝し、「志士仁人殺身仁成」(志ある士と仁の人は己が身を殺して仁を成す)の書を贈った、と言われている。岡繁樹が作成した安重根の写真入り絵葉書の文書は、この遺墨を参照した可能性が高い。幸徳もまた水野吉太郎と同郷の土佐の自由民権家の一人だったからである。この遺墨は水野と親交のあった同郷の小松元吾(Komatsu,Gengo)に譲り渡され、その縁者が2016年11月に、この遺墨を韓国に寄贈した。

③ 徳富蘆花の評価

明治・大正期に活躍した小説家の徳富蘆花(Tokutomi,Roka)は、日本が植民地支配していた中国の大連に旅行したさい、1913年10月16日に友人から1幅の遺墨を贈られた。蘆花は、1913年9月2日から11月30日までの3か月、旧満州、韓国・朝鮮半島、九州地方を旅行した。その遺墨は、「貧而無語富而無驕」(貧しくとも詔わず富みたるも驕らず)であり、この書もまた、安重根が揮毫したものである。

この遺墨もまた、他の多くの遺墨と同様に安重根の孔子の儒教思想に対する深い学殖と教養の深さをうかがわせている。またこの遺墨には、それを入手した徳富蘆花が、入手の経緯と遺墨の文章内容、そして安義士に対する彼の考えを、遺墨の端に綴っていた。

徳富蘆花が大連を訪れたのは、幸徳秋水の処刑から3年後のことであった。「韓国併合」も、1910年8月に強行された。明治政府に批判的な蘆花は、遺墨に安重根への共感と彼の死を悼む思いをしたためていたのである。✦

牧野英二

日本法政大学教授
前 東アジアカント学会会長

普段から韓国の安重根義士に関心を持っていた牧野英二教授は 2006年ソウル南山にある安重根義士記念館の訪問に続き、当年 9月、日本宮城県にある大林寺の法要に出席し、"安重根義士と水野吉太郎"に対する講義を始まりに本格的な安重根への研究をするようになった。以後、2009年義挙100周年を期して、「安重根の東洋平和論とカントの永久平和論」を比較分析した多数の学術論文を発表しており、「安重根とイマヌエル、カントの平和思想」《法政大學文學部紀要》など数編の刊行物が発刊されている。

この他にも牧野教授は、安義士の遺墨返還および遺体発掘のために日本国内にある資料調査など安重根義士を評価して知らせることにまい進している代表的な親韓知識人だ。

愛人 안중근, 사람을 사 / 랑 / 하 / 다

- 36 안중근을 기리며
- 39 뜻을 잇다
- 40 기념관 발자국
- 42 알림판
- 44 안중근 톨아보기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
제16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산문 부문 대상 수상작



할머니의 독립운동



김연주
저동고등학교 2학년

“연주야, 밥 먹어야지?”

주방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를 때 유독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악센트와 발음이 어딘지 어색하다.

혼혈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단어다. 튀기. 무례한 사람들은 뒤에서 나를 그런 식으로 불러댔다.

오늘도 나는 국적이 각기 다른 부모님을 보며 밥을 먹는다. 한국인 아빠와 할머니, 일본인 엄마. 식탁 위에도 두 개의 국적이 자리하고 있다. 익숙한 된장찌개는 아빠와 할머니 쪽에, 미소국은 엄마 쪽에. 나는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국을 삼킨다.(중략)

다음 날 학교에서 3·1절 즈음한 특별활동을 하였다. 선생님이 만화로 재구성한 독립운동가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안중근의사가 나왔다. 영상에는 안중근의사의 업적과 그 당시 배경들이 나열 되었다. 영원히 꺼질 거 같지 않던 아이들의 목청도 잠잠해졌다. 탕! 총성이 들리고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이 나왔다. 거사 뒤 만세를 외치던 안중근의사는 일본 병사들에게 포박 당

해 끌려갔다. 교실에는 어느새 슬픈 적막만이 돌아왔다.

그때 친구 한 명이 나를 보며 얘기하였다.

“그리고 보니 김연주 일본인 혼혈이잖아. 그럼 재도 일본인인 거네? 너도 이토 히로부미의 피가 섞인 후손이냐?”

그 말에 반에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한 아이는 나를 가리키며 마치 내가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이라도 된 듯 손가락질을 했다. 갑자기 방금 전 시청한 영상 속 안중근의사가 생각났다. 자신의 조국을 되찾기 위해 총을 든 안중근의사와, 침략 야욕에 눈이 멀어 온갖 못된 짓을 일삼다가 안 의사의 총탄에 쓰러져 간 이토 히로부미. 그들 사이엔 어떤 역사의 애증도 없었다. 원죄가 있고 단죄가 있었을 뿐이다.

나는 소리쳤다. 무슨 소리아. 나는 한국인 피도 섞여 있어. 그리고 일본 혼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해도 되는 거야? 목소리가 멍멍하게 나왔다. 무언가 목을 꼭 막고 있었다. 마치 덩어리가 목구멍을 압박하듯. 나는 꼭 막힌 목이 답답해서였을까. 그 말을 한 후 나는 바로 교실을 나와 버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문장이 내 머리를 헤집어 놓았다. 나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뜨거운 열을 느낀다. 동영상에 나왔던 안중근. 나는 일제의 지배에 당당히 맞선 안중근의사를 당연히 존경한다. 하지만, 하지만... 목구멍을 꼭 틀어막은 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내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한숨이 나왔다. 반 친구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다른 나라를 못살게 굴던 이토 히로부미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었다.

“나는 왜 혼혈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 질문에 아빠가 갑자기 숨을 골랐다. 아빠는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너의 할머니가 말이다...” 아빠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 아홉 살이라는 어린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그동안 아빠는 유독 할머니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엄마 앞에서 얘기하는 걸 왜 꺼려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 당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일제에 대한 억압으로 가슴에 화병 하나쯤은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바로 직계인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는 게.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 단어의 시대를 살아온 산증인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대단하였다. 일찍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는 평소 술을 즐겨 드셨다고 한다. 일본에 대한 울분이 너무 커서.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장터 일본인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셨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모두 물러가라고. 비록 난동이었지만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일본 순사들이 출동하여 증조할아버지를 잡아갔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누군들 알았을까. 증조할아버지가 파출소로

가는 문이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될 줄.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 죄. 늦은 밤길을 배회한 죄. 그것의 죄값은 참혹했다. 일본순사들은 그 이유만으로 증조할아버지에게 씬 없이 폭력과 욕설을 해댔다. 얼마나 심한 폭력들이 난무했는지 얘기만 들어서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다. 증조할아버지의 몸은 밤사이 폭력을 받아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세작으로 몰아갔다. 할아버지는 젊은 혈기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온 몸으로 맞받았다. 그렇게 증조할아버지는 파출소에서 맞아 돌아가셨다. 그것도 우리와 적대관계인 일본순사들에게. 그 얘기를 듣자 내 눈에 한 사람이 새롭게 보였다. 바로 그런 아버지를 가졌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그 어린나이에 아빠를 잃고 어떻게 살았을까. 미망인이 된 엄마 밑에서 얼마나 힘겹게 삶을 꾸려왔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중략)

비록 내 몸 속의 반쪽은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진정한 화해란 서로의 역사를 바로 세울 때 비롯되는 것이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해 보고 싶다. 잘못된 역사를 일본인들에게 바로 알리는 작업이 그 중 하나고, 또한 안중근의사처럼 제 한 몸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의 영웅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그것이다. 아빠가 없을 때 엄마에게 내 얘기를 들려주었더니, 엄마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셨다. 탕, 탕. 또다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더 이상 할머니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다시 한 번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또 누구 향해 총을 쏘는 거야?” 할머니의 답은 같았다. “일본놈들에게 쏘는 거야.” 나는 그런 할머니를 쳐다보며 얘기하였다. 그래, 우리 안중근의사 놀이하자 할머니. 그러니 나도 끼워줘. 나도 오늘부터 안중근의사처럼 독립운동 할래. 나의 펜으로. 나의 젊음으로. ♣

제4회 ‘안중근의사 알리기’ UCC 대회 수상자 인터뷰 안중근의 후예들이 만든 영상 “안중근 정신 녹여내”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국내외 젊은 세대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개최돼 온 UCC 공모전이 벌써 4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 수상자들을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다.



제 목: 도마발렌타인
수상자: 윤승현, 최원, 곽내현, 심규진(휘문중 2학년)

안중근의사의 사형선고일이 발렌타인데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발렌타인데이가 사랑하는 연인들의 날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날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안중근의사의 사형선고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제 목: 평화를 꿈꾼 세계시민 안중근
수상자: 최병민(경북대 4학년)

안 의사의 독립을 위한 투쟁 범위는 '내 조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 놀라웠다. 안 의사의 투철한 세계시민의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지금 시대에 꼭 전해져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집중했다.



제 목: 당신이 모르는 안중근의사의 업적
수상자: 윤희제, 강민우, 정용한(장훈고 2학년)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영상 중간 중간에 삽입된 삽화들을 통해 이해를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

※ 수상자 영상은 안중근의사승모회(www.patriot.or.kr)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인/삼/색 안중근 홍보대사 활동기

안중근의사나 하얼빈의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안중근 홍보대사 300여 명이 안 의사 바로 알리기에 나선 공통된 이유다.



“안 의사의 사상을 알게 됐다는 말에 큰 보람 느껴”

김승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지난 6월 2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동작50플러스 센터에서는 ‘대한 국민 안중근의 항일 독립전쟁’을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에서 안중근아카데미 6기인 김승기 홍보대사는 구한말 국내·외 정세, 일본 제국주의와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침탈, 그리고 안 의사의 국내진공작 전과 하얼빈의거의 전략 등을 골자로 강연했다. 수강자들은 “안 의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5월 2차례 열강... “몰랐던 내용 알게 돼 감동” 호응 ↑

문영숙작가, 최재형기념사업회상임이사

안중근아카데미 8기 문영숙 홍보대사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롯데르즈 코스타 세레나호에서 ‘러시아 연해주 항일운동가 최재형과 안중근’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문 홍보대사는 지난해부터 롯데 크루즈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선상강연을 진행해 왔다. 승객들은 안중근의 평화정신과 위대한 생애를 들은 뒤 “그 동안 잘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게 됐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매일경제)

“민권과 교육운동 전개한 선구자리는 사실 널리 알리고파”

택시기사 박상순 씨

서울 시내에는 안중근의사의 업적을 신고 달리는 특별한 택시가 있다. 택시의 앞 유리 창에는 ‘弘報大使(홍보대사)’라는 팻말이 달려 있다. 택시 안쪽에는 안 의사의 생애를 담은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로 시작하는 인쇄물이 수백 여 장 비치돼 있다. 이 택시를 운전하는 노년의 택시기사 박상순(74) 씨. 그는 안중근아카데미 8기로, 수년째 택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 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알리고 있다.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은 주요인사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게재 순서는 내방객 방문일을 기준으로 삼음).



◀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한상호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2018년 1월 22일)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박병대 전 대법원 대법관 (2018년 1월 30일)



◀ 이석동 전 현대상선 대표, 하복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감사원 감사위원), 박종구 초당대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정창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2018년 2월 27일)



◀ 광주일고 법조인회 11명(2018년 4월 20일)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2018년 5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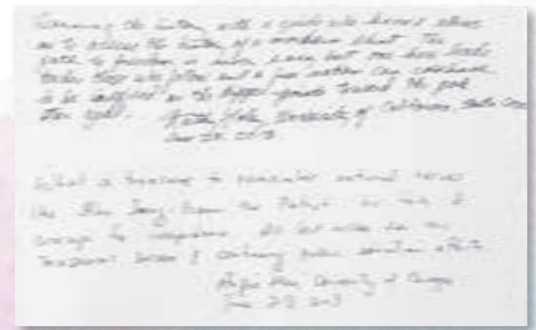
독립유공자 정대호선생 후손 10명(2018년 5월 29일)



◀ <제36회 찾아가는 CEO교실>이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장만기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은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김항식 이사장과 함께 전시실을 둘러보는 등 안 의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구국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선열들의 뜻과 기상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8년 6월 19일)



◀ 이배용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고문(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동행' 회원들이 기념관을 방문했다. 오숙영 오즈리서치 대표, 안윤정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표, 박희성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황은미 전 전문직여성한국연맹 회장, 배시화 가천대 건축학과 교수, 정현주 (사)여성역사미래 사무총장, 김성옥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구명숙 숙명여대 국문과 교수, 강정설 전 이화여대 학술원 사무총장 등 회원들은 안중근의사 좌상에 참배 후 이영옥 기념관장과 함께 전시실을 관람했다.(2018년 6월 26일)



◀ K. 폴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크루즈 교수, 앤지 허 시카고신학대 교수 (2018년 6월 28일)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신임 임원간담회 개최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지난 2월 21일 신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 선임된 부이사장과 이사에 게 선임장과 위촉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민남규 부이사장, 곽준상, 김규완, 김영재, 안병광 이사, 안숙선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임원 조찬강연회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숭모회 임원 간 친목을 겸한 조찬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숭모회 이사, 명예이사,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2일 세종호텔에서 진행된 첫 조찬 강연회에서는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찾아야 할 주요 자료 조사 현황(의거현장 촬영 필름, 공판기록, 유해)'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 5월 24일 서울클럽에서 진행된 2차 조찬강연회에서는 이배용 숭모회 고문(전 이화여대 총장)이 '한국근대화의 시련과 안중근의사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2018년 정기총회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지난 3월 15일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임을 마쳤다. 부이사장에는 이원태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과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이, 이사에 곽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과 박귀언 여순순국선열재단 상임이사가, 명예이사에는 장현운 숭모회 하얼빈 지회장이, 감사에는 김상옥 전 화인코리아 사장이 각각 재선임 됐다. 신규이사로는 곽준상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규완 (주)기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영재 칸서스 자산운용(주) 회장, 안병광 (주)유니온팜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그리고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추진단장에는 안봉락 중

국 신생활그룹 회장 겸 본회 명예이사가, 유해 발굴 자문위원에 정해훈 대한언론연합회 회장이 새로 위촉됐으며, 안숙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이 자문위원에 재위촉됐다.

안중근의사 외증손 이명철 씨 내한



안중근의사의 외손녀인 황은주 여사의 막내아들 이명철 씨(미국 캘리포니아 거주)가 지난 5월 1일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명철씨는 할머니 안현생 여사(안중근의사의 장녀)의 묘소를 참배하고,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김항식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항식 이사장 용인세브란스병원 안중근 강연



김항식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9일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신임 운영위원 위촉



▲ 이성순 운영위원



▲ 최영록 운영위원



▲ 도진순 운영위원

김항식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은 지난 4월 1일, 3년 임기의 안중근의사기념관 신임 운영위원에 이성순(이화여대 명예교수 겸 한국섬유미술가회 부회장), 최영록(한국멀티미디어뉴스협회 회장 겸 한국고전번역원 홍보전문위원), 도진순(창원대 사학과 교수) 등 3명을 위촉했다.

안중근의사 순국 추모식 성황리에 열려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26일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항식)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 광복회 박유철 회장, 안중근의사 유족, 표창원 국회의원,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을 비롯한 일반시민, 본회 임원과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약전 및 최후의 유언 낭독, 참석 내빈의 추모사, 전국 학생글짓기대회·안중근의사 알리기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는 ‘평화사상선양 국제친선교류회’가 개최됐다. 유족으로는 안도용(증손자), 안기영(재증손녀) 씨가 참여했으며 일



본에서는 도쿄 호세이대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교수, 가나자와대 송안중 교수, 가노 겐(鹿野元) 변호사, 시마네현의 고마츠 아키오(小松昭夫)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미야기현의 오노데라 쿠니요시(小野寺邦義) 사담회 회장, 사가현의 안중근의사 동양평화기원비를 건립한 야마사키 케이코(山綺恵子) 일행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안중근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뜨거운 향학열



안중근 아카데미는 안중근의사를 비롯한 우리 근대사에 관심이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안 의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안중근의사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수료 후 27명이 안중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안중근 아카데미는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사상, 한국 근대사의 시련과 극복, 안중근의사의 유고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분석으로 안 의사가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또한 국외 안중근의사 사적지 답사(하얼빈의거 현장, 뤼순 감옥 등)를 통해 하얼빈의거와 그 행적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보냈다.

제15회 안중근평화학교 개교

안중근의사기념관의 평화학교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으로 빠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매년 겨울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단순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생각하면서 습득하는 활동 프로그램에서 부터 직접 만들고 구성해보는 창작 프로그램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교육주제 : 안응칠역사 이야기
- 참여인원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25명, 고학년(4~6학년) 29명
- 교육일시 : 초등학교 1~3학년 - 2018. 1. 15 ~ 1. 16, 고학년 2018. 1. 17 ~ 1. 19
- 교육장소 : 안중근의사기념관 교육실 및 전시실
- 참가비 : 무료

이번 교육에서는 활동지를 통해 모듈별로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알아보고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인 하얼빈의거를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중근의사가 남긴 유물을 한글자씩 정성스럽게 쓰면서 안중근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물의 의미를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안중근의사 숭모사업 후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신규 표시

법인 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영재	칸서스 자산운용(주) 회장	윤종구	천우항축(주) 기술고문
안영홍	(주)순흥테크 회장	박귀언	여순순국선열재단 상임이사	윤현주	윤현주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원태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박병환	전 주 러시아 경제공사	이상림	공간그룹 대표
민남규	(주)자강산업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총무 대표변호사	이우식	올라이트라이프(주) 회장
김경희	전 용마공영(주) 회장	안경오	(주)삼화상사 대표이사	장성훈	(주)PS오성 대표이사
안용석	대화건설(주) 회장	안근배	순흥안씨 참판공파	정지옥	(주)대덕시스템 대표이사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안병광	대중회 부회장	김상옥	전 화인코리아 사장
곽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안완기	(주)유니온팜 대표이사	전진근	서일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곽삼근	이화여대 교수	안완기	순흥안씨 참판공파	안봉락	중국 신생활그룹 회장
곽준상	(주)도화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진근	순흥안씨 참판공파 사무총장	안재성	리치 주택건설(주) 회장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안호택	(주)디셈 대표	유상준	전 (주)세왕종합상사 회장
김규완	(주)기한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동한	한국콜마(주) 회장	蔣賢云	제주 분마이호랜드 회장
김대현	(주)페이펄유통 대표이사				

안중근 장학기금 후원

경광장학금(2001년~): 고 이종락·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장, 1억 5천만원 덕원장학금(2001년~): 안승우, 1억원

안중근 유해발굴지원기금 후원

민남규 (주)자강산업 회장, 1억원(2015년)

평생회원

다카하시 고준(高橋公純)	김월배	하얼빈이공대 교수	노수문	(주)노수테크 대표이사
태양회 이사장	김윤자		동문성(신)	전 속초시장
권영호	김재영	서울 서초구	류종묵(신)	(주)흥국 회장
권오성	김종남	고려항업(주) 대표이사	문원상	부산 수영구
김대현	김주태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	박덕현	(주)GNS해운 대표이사
김승기	김홍렬	(주)두산정보통신 부장	박병환	전 주 러시아 경제공사
김애실	나영주(신)	광주 광산구	박상규	경기 이천시

박용옥(신)	성신여대 명예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이원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인호	전 해병전우회 부총재	양창선	복천사 주지	이정홍	서울 강남구
박한지	강원 철원군	여수진	기초과학연구원	이종경(신)	안중근의사기념관 부관장
박현수	(주)진흥안전관리 대표	유명옥	아리랑보존회 이사장	이태진(신)	서울대 명예교수
방호갑(신)	미국 캘리포니아	윤종구	천우항축(주) 기술고문	이혜균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
배금원	경북 경주시	윤형한(신)	윤형한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재덕	미국 캘리포니아
백의웅	백부항진공정혈원 원장	이 담	특허법인코리아나 CKO	전순영	서울 강북구
백주용	(주)퀵테크 대표	이 호	경기 화성시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서은철(신)	(주)페이펄유통 상무	이강녕	경기 성남시	전진근	서일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서홍우·한춘희	삼화건설 대표	이강연	전 의정부보호지청장	정재호	(주)BOM에코텍 회장
선주영	비법수학 원장	이경림	서울 영등포구	정준영	서울 서초구
손봉석	강원 원주시	이기선	서울 중구	정지옥	(주)대덕시스템 대표이사
손인춘	전 국회의원	이동춘	경기 파주시	정하철	전 서울보호청장
신길현	경기 부천시	이미금(신)	서울 양천구	최석진	경기 성남시
신영건(신)	서울 송파구	이배용(신)	전 이화여대 총장	최을호	부산 사하구
신현재	서울 성북구	이봉석(신)	ESC경영원 대표	최인훈	고려대 명예교수
안광웅	충남 당진시	이상근	경기 광주시	최재승	전 국회의원
안군준	(주)월비스 회장	이상정	서울 종로구	최진일	국립한밭대 교수
안기영	안중근의사 재종손녀	이상현	상경물산 회장	한성일	건국대 교수
안덕주	전 포스코 이사	이석형(신)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황덕호	전 함경남도지사
안세준	러시아 모스크바	이수광	(사)독도중앙연맹 총재	황은주	안중근의사 외손녀
안재관(신)	경기 성남시	이수진	전 청주보호지청장	황치봉	안중근서예협회 회장
안종일	백범기념사업협회 광주전남지부 협회장	이용훈	서울 마포구		
안중채	서울 강남구	이우진	강원 철원군		
안지현	부여상선(주) 대표	이용열	광복회 회원		
안철범	에이스가구 전무				
안희돈	건국대 교수				

특별회원 <30만원 이상>

강태희	경기 수원시	송지호	KAIST 명예교수	임채민(신)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미애	서울 종로구	안길웅	인천 남동구	최창섭	전 MBC아나운서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	오세형	(주)한국도픽교육센터 대표	황민재	서울 동작구
김현정(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유승희	삼육대 교수	귀자 모리스(Kwija Morris)	서울 용산구
문한식(신)	문한식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관우(신)	(주)리스틀 대표		
손은진	특허법인 아이퍼스 대표	이은석(신)	전 (주)한화 상무이사		

일반회원

<10만원 이상>

고재신 광주 북구
김황규(신) 경기 양주시
박병휴 서울 서초구
서예준 경기 하남시
이정규(신) 경기 성남시
황민재 서울 동작구

김종진 경기 광명시
김주희 서울 용산구
김학수 서울 광진구
김현동(신) 서울 서초구
도재숙 서울 강서구
민명주 경기 용인시
박경화(신) 인천 계양구
박기선 서울 관악구
박상순 서울 광진구
박영복(신) 서울 송파구
박채환 대구 중구
서 숙 서울 영등포구
심오택 경기 고양시
안광순 충남 서산시
안문영 경북 안동시
안봉희 서울 동대문구
안세현 서울 종로구
안승현 충북 청주시
안준길 부산 동래구
안준희 경기 하남시

양 미 서울 노원구
이병복 대구 동구
이상훈 충북 청주시
이선아 경기 고양시
이승무(신) 경기 수원시
이원술(신) 서울 용산구
이행신(신) 서울 동작구
이호영(신) 서울 종로구
장세진 경북 상주시
전태수 경기 용인시
정경현(신) 서울 동작구
주은아(신) 경기 광명시
진미선(신) 전남 무안군
최숙남 부산 해운대구
최숙희 서울 노원구
최 진 서울 송파구
최찬비(신) 서울 은평구
태원우 서울 서초구
한옥동 서울 영등포구
현미옥(신) 서울 은평구

<10만원 미만>

강성부 경남 창원시
강종구 서울 관악구
기민정(신) 서울 노원구
김미겸 경기 성남시
김병국(신) 경남 창원시
김병렬 경기 용인시
김병로(신) 경기 안양시
김석진 경기 남양주시
김수겸 경기 성남시
김연준 전남 고흥군
김장규 전남 목포시

외국인

다카하시 다츠히로 (高橋龍洋)
다카하시 다츠히사 (高橋龍壽)
다카하시 지나 (高橋智那)

다카하시 지운 (高橋智雲)
다카하시 지유 (高橋智由)
다카하시 치카 (高橋千華)

단 이사오 (段勳)
도요즈미 신지 (豊住伸治)

특별 후원금

박현수 인천 남동구
전진근 공인회계사
(주)진흥안전관리

(주)호텔롯데
가노 겐 (鹿野元)
史談會(일본 구리하리시)

야마가와 아키라 (山川暁)
치바 히데키 (千葉英樹)

기념관 후원

김영탁 대구 수성구
김우재 서울 강남구
김윤정 인천 남동구
박소정
박효진 서울 은평구

배소영 경기 안산시
안경민 서울 노원구
이수진 경기 용인시
이연조 서울 강남구
이장노 서울 중구

장낙승 서울 노원구
조성태 경기 고양시
최은경 서울 송파구
최정은 서울 용산구

기념관 추모실 헌화

광복회 충북도지부 청주지회, NICE 대표 이상근, 신길현

※ 소속·직함이 없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중근사랑(승모)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Tel) H.P)	e-mail	
자택주소	(우)		
직장주소	(우)		
직장명		직위	
가입동기/ 추천인			

※ 회비납부방법은 CMS 자동이체 또는 본인이 직접 입금 하는 계좌이체 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를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 등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함을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CMS 자동이체	①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월 5,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10,000원
	② 특별회원	<input type="checkbox"/> 월 3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50,000원
	③ 희망금액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원

※ 연 합계금액 60,000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에 한해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동이체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뒷면 'CMS출금이체신청서'를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송부 바랍니다.
※ 매월 20일 자동 출금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출금)

계좌이체 ※ 본인 직접 입금	① 일반회원	연 60,000원
	② 특별회원	연 360,000원
	③ 평생회원	1,000,000원 (1회에 한함)

● 납부계좌 : 농 협 097-01-174281 (예금주 : 안중근의사승모회)
우리은행 009-177521-01-001 (예금주 : 안중근의사승모회)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사)안중근의사승모회 귀중

주 소 (04636)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문 의 Tel) 02-771-4195,6 Fax) 02-753-5033
e-mail patriot1909@gmail.com
홈페이지 http://www.patriot.or.kr

※ 회비납부(계좌이체 포함)시 신청서를 FAX 또는 e-mail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안중근의사의 장녀
안현생 여사



안중근의사는 김아려 여사와의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다. 그중 첫째인 딸 안현생(安賢生, 데레사, 1902년 5월 1일~1960년 4월 4일)은 1910년 아버지 안중근의사를 잃었다. 1909년 10월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 직전, 어머니 김아려 여사는 두 동생 분도와 준생을 데리고 하얼빈으로 떠났고 안현생 여사는 1915년 일제의 눈을 피해 러시아로 망명해 가족과 합류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불문학과 미술을 공부했고 1923년 독립운동을 하던 황일청과 결혼했다. 황일청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군무부 참사를 지냈다.

1932년 윤봉길의사의 홍커우공원의거 이후, 김아려 여사를 비롯한 안중근의사 가족은 상하이를 탈출하지 못했다. 황일청은 일제에 체포돼 평양으로 압송, 5년간 연금 생활을 해야 했다. 이후 일제는 황일청을 중국 장쑤성 쉬저우(徐州) 교민회장으로 데려갔고 안현생 여사 가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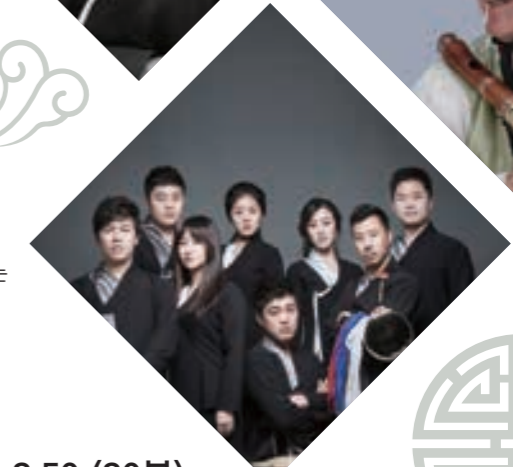
이를 따라 쉬저우로 옮겨 갔다. 여사의 가족은 1945년 8월 광복을 쉬저우에서 맞았다. 광복이 되자 일본군에 징집됐던 조선 학병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귀국선을 기다리는 6개월 동안 황일청은 집 아래층에 교민 자녀를 위한 '서주 한국 중학교'를 열고 조선 학병들로 교사진을 꾸려 학생들을 가르쳤다. 황일청은 1945년 12월 쉬저우에서 피살당했다.

이후 안현생 여사는 남편을 잃고 서울로 돌아와 생활에 시달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구로 피난, 6·25전쟁 말기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불문학 교수(학생과장)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로 옮겨 생활하던 중 1960년 4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고혈압으로 58세의 굴곡 많았던 삶을 마쳤다. 슬하의 두 딸 중 황은주 여사(90)는 현재 수원에서 요양 중이며, 동생 황은실 여사는 작고하셨다. 안현생 여사의 무덤은 서울 강북구 삼각산 자락 아카데미하우스 근처에 위치해 있다. ♪

안중근의사 의거
109주년 기념

안중근평화음악회

2018년 10월 10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자
판소리 안숙선 명창
대금 원장현 명인
무용 진유림 명무
우리소리 바라지

- 소리, 타악, 기악, 연희 등 여러 전통음악 가운데 시대적 감각과 통할 수 있는 요소를 간추리고 다듬어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무대

일시 2018년 10월 10일 (수) 오후 7:30~8:50 (80분)
장소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
주최 국가보훈처
주관 (사)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
기획 NOWPAN ENT.
※ 입장료 무료